建 議 文

尊敬하는 大統領께,

온 國民이 다함께 잘 살수 있는 民主福祉社會 建設에 不撤晝夜 勞心焦思하고 계심에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드리오며, 尊體 더욱 健勝하심을 祈願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農產物 協商에서 쌀等 기초食糧에 對해서는 市場開放 對象에서 除外될 수 있도록 하나같이 努力하고 主張해 왔습니다.

그러나 昨今 動向을 살펴보면 例外없이 市場開放을 强行하게 될 것이라는 豫想이 되는바,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 農民들은 結局 農產物 輸出國들의 農民을 爲해서 祖上

代代로 내려온 우리의 固有한主食의 根幹인 쌀농사를 포기하고 生存權마저도 박탈당해야 하는 횡포에, 실로 참담한 心情을 禁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쌀收入은 곧바로 農業의 重大한 危機와 나라살림의 國際的 經濟弱勢를 招來할 수 있으며, 國家 尊立의 最小의 條件마저 喪失하게 됨을 잊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쌀은 우리 農民의 主作物로 全體 農家의 80% 以上이 오랜동안 慣習的으로 栽培하여 왔고, 農業生產 所得面에서도 50% 以上을 차지하는 代表的 作物이라는 점에서 쌀은 우리 農民이 死活과 直結된 것이며, 우리 國民의 生命인 것입니다.

環境保存的인 面으로보아도 푸른 空間의 提供은 勿論이요, 地域間의 均衡發展, 고용維持等 農業의 役割的인 側面에서보아도 쌀輸入開放만은 絶對的으로 있어서는안된다는것이 우리 道民, 더 나아가서는 700萬 全國農民의 確固한 立場임을 다시한번 分明히 밝히면서 다음 事項을 建議하고자 합니다.

○ 첫 째 : 쌀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自給生産하여 農産物 輸出國들의 食糧武器가 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임으로 어떠한 狀況에서도 不可한 立場을 固守해 주시기 바라며

○ 둘 째 : 國內農業의 活性化를 爲하여 農村에 劃期的인 政策樹立과 아울러 積極的인 支援으로 農工竝進의 均衡成長을 이룰수 있도록 調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 10. 30

忠淸北道議會 議員一同